

# 연중 제5주일 복음 나누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5,16)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태 5,13-16
-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 성경해설 >

참된 행복선언(5,3-12)에 귀 기울이던 군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너희”(13,14,16절)라고 친근하게 부르시며 당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고유한 짠맛으로 음식의 변질을 막고, 음식에 맛을 더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소금이 ‘제 맛을 잃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상’이란 단어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이 사는 곳이며, 제자들이 행복선언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한낱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의 맛을 전해주지 못하는 제자들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7,26)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혼란스런 상황에 단박에 동화되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그 위에 신앙의 기반을 튼실하게 쌓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분명히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세상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소금처럼 자신을 죽여가면서 세상 안으로 스며들

어갈 때, 제자들은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산위에 자리 잡은 마을”과 등불”(15,14-15)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산위에 있는 고을은 성경 안에서 자주 복음화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밀려드는 “주님의 산”입니다(이사 2,2-3).

마태오복음사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빛이셨습니다.(4,12-17) 팔레스티나의 등불은 흙으로 만들어진 작고 단순한 그릇입니다. 가운데 심지 밑에 기름이 있었는데, 심지에 불을 켜면 등불은 방 안을 환히 비추게 됩니다. 그렇게 쓰임의 용도가 있는 등불은 함지 안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최선을 다해 세상 안에서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등불이지 빛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빛에 의해서만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안내받은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란 단순히 인간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야곱의 우물 참고)

하느님께서서는 제자로 불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58,9-10)고 말합니다.

#### ※ 목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일상 안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주십시오.*

####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8. 안건토의

#### 9. 기타토의(공지사항)

####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